

한국정직운동본부 정직포럼 개최

“정직운동 전국민적으로 일으켜 나가자”

(사)한국정직운동본부(이사장 박경배 목사)는 지난 11월 16일(목) 오전 10시 대한민국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정직포럼을 개최하고 정직운동이 전국민적으로 일어나 정직한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이 되길 염원했다.

이사장 박경배 목사는 포럼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포럼을 갖게 된 것은 만연한 거짓을 처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이다. 동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정직이며 정직한 국민이 되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 정직운동이 저축 장려운동과 새마을운동처럼 전국민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늘 이 포럼이 정직한 정치 풍토,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직과 공의가 통용되는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 포럼이 건설적인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각각 밝혔다.

‘정직의 복을 실천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첫 포럼에 나선 오정호 목사(예장합동 총회장)는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 국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 존경받는 위치에 서려면 입법에 대한 열정과 행정에 대한 적용 그리고

사법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목사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언어의 정직, 인간관계의 정직, 직분의 정직, 경제의 정직, 기도의 정직, 인간관계의 정직, 직분의 정직, 기도의 정직이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직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 제28차 정기총회

말씀에 올라로 서서 예수 향기를 발하는 교회 다짐



양정섭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는 1996년 1월 23일 당시 문화체육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올해로 28주년을 맞았다.

개혁신교단협의회는 지난 11월 24일(금) 여전도회관 2층 루이지엄관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말씀에 올라로 서는 교회 예수 향기를 발하는 교회, 은혜 충만, 성령충만한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위 사진)의 사회로 시작되어 예장합동개혁신교총회 총회장 이승권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사회자가 봉독하고, 예장합동부흥총회 총회장 김권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권현 목사는 요 12: 1-8 말씀을 본문으로 ‘향기가 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당부했다. 예장개혁신교총회 총회장 박형렬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2부 총회에서는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 주재로 이사 허용준 목사(예장개혁신교총회 총무)의 기도 후 회무처리에 들어가 질자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고 총무이사인 김영의 목사의 회원 점명, 의장의 개회선포 후 질자보고와 전 회의록을 채택하고 대표회장 임무보고와 총무이사 사업보고, 재무보고 서경숙 목사, 최은희 목사의 감사보고 후

유인물대로 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모든 임원은 4년 임기 만료됨에 따라 다시 선출하여 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유인되었 으며 신 임원진은 이사 양정섭 목사, 노종관 목사, 박형렬 목사, 김권현목사, 임정태 목사, 서경숙 목사, 허용준 목사, 이영남 목사, 한성옥 목사, 임세준 목사, 민경구 목사, 전대식 목사, 박경주 목사, 김영의 목사를 선출했으며 감사에 최은희 목사, 김정희 목사 등을 신 임원으로 선출했다.

한국기독교언론협회 대만 방문, 기독교 문화 탐방

3박 4일 일정으로 대만 방문, 역사와 정신 이해



한국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언론의 사명을 감당해 온 한국기독교언론협회(회장 노곤재 목사)가 11월 8일(수)부터 11일(토)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협회 수련회로 진행되어 소속된 회원사 회원들이 함께 하여 대만의 기독교문화 및 역사와 정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다.

일정 중 대만 단수이에 있는 진리대학을 방문했다. 대만 최초의 서양식 대학으로 1882년 캐나다 선교사 마헤에 의해 설립된 타이완 최초의 대학이다. 마헤의 고향인 캐나다 옥스퍼드 지역에서 모금한 금액으로 건 축되어 옥스퍼드 칼리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

었으나 1999년도부터 진리대학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현재는 인문과학, 금융 경제, 경영, 관광 레저 스포츠, 정보과학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 다양한 학부 및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대만 장제시(장제스) 총통 기념관인 대만 민주기념관(옛 중정기념당)도 방문했다. 장개석의 종교는 개신교(감리교)로 그의 아내 송미령(송메이링)과 결혼 할 때 불교에서 개종했다.

노곤재 회장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코로나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기독교언론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일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 한다”고 말했다.

제25차 신바람목회세미나 개최

“지도자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난다”

비전교회와함께하기운동본부(회장 김진호 목사)가 주최하는 제25차 신바람목회세미나가 지난 11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성북구 보문로 소재 보문제일교회(담임

신태하 목사)에서 열려 비전교회의 성장을 통해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데 이바지 할 것을 다짐했다.

회장 김진호 목사는 세미나에 앞선 인사

말을 통해 “이 신바람목회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목회에 도움을 얻는다 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지도자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난다. 이 신바람목회세미나를 통해 목회자들이 힘을 받고 감리교단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회예배는 사무총장 원종희 목사의 사회로 총무 이광호 목사의 기도, 보문제일교회 신태하 목사의 갈 1:1~3 말씀을 본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설교, 선교국 총무 태동화 목사의 감리교회 선교정책과 현황에 대한 소개에 이어 회장 김진호 감독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가 바라고 사모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사)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수요일예배

(사)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이사장 염신형 목사, 대표회장 분세광 목사(이하 한원총) 산하 한국원로목자교회(담임 양창부 목사)는 지난 11월 15일(수)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원신총회 총회장 김한수 목사를 초청해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심임회장 임광재 목사 사회로 참석자 모두의 통성기도, 문무열 목사의 성경봉독, 목자전양대의 찬양 순으로 진행됐다.

김한수 목사는 롬 8: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누가 제일 좋은가요’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좋은 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가 바라고 사모해야 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좋은 신 하나님

은 여기에 모이신 원로목사님들을 지켜보고 사모하신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계속해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놓고 이사장 염신형 목사의 인도로 뜨거

운 기도시간을 가진 후 한국원로목사교회 양창부 담임목사의 광고와 대표회장 분세광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한국원로목자교회에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도 원로목사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전국 장애인합창단들 화합의 하모니

제31회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합창대회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이사장 최공열/이하 국장협)와 충청남도 부여군(군수 박정현), (사)한국장애인음악협회가 공동주최한 ‘제31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장애인합창대회’가 지난 11월 16일(목) 충남 천안시 소재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합창대회에는 전국의 장애인합창팀 중 지역 예선을 거친 전국 16개 팀과 제11회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우승팀 1팀, 총

17개 팀이 참가해 뜨거운 경연을 펼쳤다. 영예의 대상(대통령상)은 대구 빛살합창단에 게 돌아갔다. 금상(국무총리상)은 서울 코웨이 빛살빛소리합창단이며, 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울산 소나무합창단이 받았다. 동상(부여군수상)은 제주 장애인아울림합창단이 수상했다.

심사는 전 국립국악관현악단 음악감독 김성진(심사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김동범, 전 (사)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

발원 초대 이사장 이철용, 스킨오페라 오케스트라·합창단 음악감독 임병욱, 한국합창총연합회 허경재 선임이사가 진행하였다.

시상식은 12월 1일 서울 여의도 클레드호텔에서 진행된다. 시상식에서는 수상발표와 더불어 대상부터 비전상까지 두루 수여될 예정이다. 심사는 표현력, 협동성 각 30점, 무대 매너 각 20점과 참여도 및 관객심사단(서포터즈) 각 10점으로 각 5가지 항목으로 ‘전문심사위원들’과 ‘관객심사단(서포터즈) 20명’을 통해 심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합창대회는 17개팀의 경연과 축하 공연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축하공연으로는 (사)국장협중앙회 소속 팔리체예술단과 국장합나눔챔버오케스트라, 민요자매, 지난 2022년 본 협회가 주관한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경기 화성장애인합창단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캄보디아에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공급

예감 전 감독 손선영 목사, 캄보디아 집회...은퇴 후에도 활발한 선교활동



예수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역임한 손선영 목사가 은퇴 후에도 더 활발한 목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선영 목사는 지난 11월 13일(월)부터 18일(토)까지 캄보디아에서 집회 및 성경강해, 그리고 배나눔 봉사를 통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손선영 목사가 이번에 선교활동을 한 곳은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오래전 목사가 현지인들을 집중교육시켜 복음의 사명자로 거듭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교봉은 모로코는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현지 의사인 네이마의 도움으로 잠정적

으로 지역을 먼저 선정했고,지역 공무원과 지역 대표와의 여러 차례 우선통화와 직접 면담을 통해 최종지역 선정과 필요한 물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모로코 지진피해지역 이재민 긴급구호

한교봉 “한국전쟁에 달려온 모로코 군인 기억” 도움 나서

한국교회봉사단(이하 한교봉)이 9월 8일 모로코 마라케시 서남부 71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이재민 겨울나기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변 지진은마라케시 남부 산악지대(아틀라스에서 일어났다. 산악지대마을 특성상 피해지역이 흩어져 있고 접근 가능한 도로가 1차로인데다 낙석의 위험이 큰 지역이어서 접근이 쉽지 않다.

특별히 이 지역은 지진으로 인하여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가나 손상되어 생존 주민이 모두 이재민이 됐다. 외부 기관의 접근의 어려움과 동시에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상태로 식료품, 텐트, 담요, 기초의약품, 의료서비스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교봉은 모로코는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현지 의사인 네이마의 도움으로 잠정적

“WCC · 동성애 · 이단 · 공산주의 배격, 자유민주주의 수호”

한국교회보수연합, 제1회 한국교회를 깨우는 포럼 개최
“총선에서 부정선거 목인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무너져”



설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환영사
박만수 목사
한국교회보수연합

한국교회보수연합(이하 한보연 KCCA, 대표회장 박만수 목사)은 지난 11월 23일(목) 오후 2시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안양성전에서 ‘이 시대 보수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회 한국교회를 깨우는 포럼을 개최하고 WCC, WEA, NCCK를 배격하고 동성애와 이단, 공산주의를 철저히 금하면서 교회의 본질 확립과 예배를 회복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여 한국교회를 통해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고 회복을 위한 각오를 다지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드린 예배는 삼일회장 신상철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대표회장 박만수 목사의 환영사, 마약퇴치위원장 박종성 목사의 기도, 서기 김영환 목사의 성경봉독, 은혜와진리교회 솔리스트 앙상블의 특송 ‘내 목자는 사랑의 왕’ (송혜원, 김성혜 박병준, 정영환, 엄주혜)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돌렸으며 고본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담임)는 엠 5:8-11 말씀을 본문으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보수연합은 종교다원주의, 세속화를 확실하게 배격하고 성경대로의 신앙을 견지하며 교회를 발전시키는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침투와 악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이런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특징인이나 특정교회를 의지하기보다 회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내년 4월 총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목인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교회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한국교회보수연합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표회장 박만수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교회가 비로써야 나라가 산다”라고 전제하고 “한교총은 종교다원주의로 참된 기독교가 아니며, 한기총은 이단에 조종당하고, 한교연은 이단에게 먹혔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오늘 한국교회를 깨워 바른 개혁주의 신학으로 부흥하고 청교도적 신앙으로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NAP제정 반대 성명서 낭독 시간에는 유소년위원장 고병찬 목사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했고, 총괄본부장 최홍하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래위 아카데미이단단장 서원실 권사의 한금 찬양, 회계 감사관 장로의 한금기도, 상임회장 강현식 목사(건강한경기도만들기국민연합 대표회장/평택순복음교회)의 격려사, 국제분회대 정사무엘 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기감 전 감독 김진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2부 포럼은 언론홍보위원장 이은재 목사의 사회로 김재성 박사(국제신대 부총장)가 ‘배를 따라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이단적 목사(이슬람대책위원장)가 ‘이슬람의 정치와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장현원 목사(시국대책위원장)가 ‘대한민국 체제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박은순 목사(여성위원장)가 ‘WCC와 NCCK,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만석 목사는 “정부는 다문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나라에 무슬림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오히려 신유교 출신이라고 우대하고 있는 경향까지 보인다. 그러나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지 않으면 유럽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때문에 큰 재앙이 올 수 있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지하철 테러나 열지테러나 학교 테러 등의 소식은 이대로 가다보면 멀리 않아 우리 가족들이 그 희생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실정을 전했다.



이목사는 이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슬림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슬람은 악한 영이요 악한 가르침이지만 그 영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엡 6:12) 그러므로 무슬림들을 마워하며 육적인 싸움으로 밀고 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무슬림들은 악한 거짓 영에 속고 있는 불쌍한 피해자들이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께 기도해서 그들의 갇힌 눈이 뜨히고 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은순 목사는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사상으로 ‘영지주의’가 있었다면 이 시대는 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있다. 이는 심각한 이단이다.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NCCK와 WCC는 복음과 선교



은혜와진리교회 솔리스트 앙상블의 특송 ‘내 목자는 사랑의 왕’ (송혜원, 김성혜 박병준, 정영환, 엄주혜)

를 논하고,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등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변명을 하나 부인할 수 없는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이는 인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반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이다. 성경에 근거한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또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웨슬리의 신학이나 사상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계속해서 “지난 2023년 기감 제 35회 총회 때 이철 감독회장이 NCCK와 WCC

를 논하고,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등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변명을 하나 부인할 수 없는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이는 인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반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이다. 성경에 근거한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또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웨슬리의 신학이나 사상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72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개최

자유민주주의 수호, 부정선거 방지 북한 핵도발 봉쇄

한·미동맹 강화, 편향된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즉각 개편해야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김병목 목사) 제72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11월 16일(목) 오후 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열려 최근 진행 중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 신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실행위원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정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경기북 지방회장 문찬우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에 4:12-14 말씀을 본문으로 ‘이 때를 위하여 이 사람이 나타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의 주인이지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기를 희생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힘쓰며 우리 다 같이 예수님과 같이 애국애족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당부했다.

이어 전임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2부 회의는 총회장 김병목 목사 주제로 열려 실행위원회와 안전을 유인물로 받기로 결의하고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한국교회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들었다.

특히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

는 순간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공정한 선거관리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행위원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한바를 되어 기도했다.

실행위원들은 현행 헌법에 어긋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편향된 사상을 주장하는 단체가 주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을 즉각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저지를 위해 법안이 폐기되도록, 북한의 무도한 도발이 중단 되도록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등을 위해 기도하고, 코로나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된 상황이 아닌 만큼 교회 내에서의 세심한 감염병 예방에 더욱 힘쓸 것을 강조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4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 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 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3.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시교부 및 접수: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1737-04-006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목회자가 될 것 강조

부산동지방회 월례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조정화 목사)는 지난 11월 14일(화) 오전 11시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399에 위치한 물대동산교회(담임 옥경숙 목사)에서 1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옥경숙 목사(물대동산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총무 조은혜 목사(순복음은혜와사랑의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담전 6:3-19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예수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여 다름이 일어 날 수 있으므로 마음이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고, 의와 믿음과 경건한 사람과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며 "햇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부어잡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며 햇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나라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병섭 목사(순복음장성교회)의 헌금기도와 총무목사의 광고 후 전임지방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 2부 월례회에서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정영진 목사의 후원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닷가 보이는 다대포카페에서 윤혜영 목사가 제공한 맛있는 빵과 커피를 먹으며 담소를 나눈 뒤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가을수양회 통해 회복과 충전의 시간 가져

부산동지방회 수양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조정화 목사)는 지난 11월 16일(목) 지방회원들 간의 단합을 위해 고성 및 삼천포 일대에서 가을수양회를 가졌다.

이날 지방회원들은 고성에 도착해 먼저 예배를 드리고 고성 공룡박물관과 일대를 관람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공룡박물관에서 나온 지방회원들은 올레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감상하며 오랜만에 자연을 통한 쉼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삼천포로 자리를 옮겨 점심식사를 하고,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목회자 다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이문근 목사)는 지난 11월 14일(화) 오전 11시 한화순복음교회(담임 이동수 목사)에서 지방회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진호 목사(시랑과진리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김근철 목사(생명수

교회)의 대표기도, 이동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행 6: 1~7 말씀을 본문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교회가 침체되고 쇠퇴기에 있다. 이런 때일수록 초대교회의 위기극복 비결을 배워야 한다"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복음 전하는

일보다 과부들 구제하는 일로 분열위기에 처했었지만,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며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 직무를 위임함으로써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했다. 오늘날도 이처럼 목회자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무장하여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워나가지"고 권면했다.

이어 김용 목사(새희망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월례회의를 시작했다.

월례회의는 지방회장 이문근 목사의 인도로 각 부서별 보고를 받았는데, 특히 체육위원회 주관으로 치러진 지방회 단합 한마음 체육대회(11월 6일)를 성황리에 마친 것에 박수를 보냈다.

기타 토의 사항으로는 내년 지방회 종교개혁기 방문 여행 일정을 4월 3주 주간에 가기로 결정하고, 지방회 환우 목사들의 건강회복을 위한 합심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자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허만운 목사)는 지난 11월 20일(월) 새김전교회(담임 신재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항구 목사(주찬양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부회장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전임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사 4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들이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인철 목사(상주반석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허만운 목사(순복음성산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2부 월례회를 통해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기타인건을 처리한 후, 지방회원들은 김전의 식당으로 이동해 점심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사람의 교제를 나누었다. 그리고 카페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 후 아쉬운 인사를 뒤로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향했다.



월례회 갖고 교단과 나라를 위해 기도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문찬우 목사)는 지난 11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다시랑교회(담임 이경진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박용진 전도사와 이상숙 전도사의 찬양인도 후, 지방회장 문찬우 목

사의 사회로 시작해 전한배 목사의 대표기도, 문찬우 목사의 성경봉독, 오세준 목사의 시 73:2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후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탁정신 목사의 헌금기도, 육준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월례회는 문찬우 목사의 사회로 총무·서기 박태균 목사의 회원점명과 총

무·서기보고 후, 재무·회계 전한배 목사가 재무·회계보고하고 기타 인건에 대해 토의한 후 강인덕 목사의 폐회 기도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월례회를 마친 회원들은 일산에 위치한 고양플랜테이션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며 사람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년 부흥사회 겨울단합기도회

|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 장 소 | 제천순복음양문교회 (김기진 목사 시무 : 010-4112-9313)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29길 50

겨울 단합 기도회 시간표

시간	내용	인도자	대표기도	설교자 & 강사	헌금기도
p.m 12:00	점심식사				
13:00~13:30	어는예배	오세준 목사	김남수 목사	김기진 목사	김연옥 목사
13:30~13:40	휴식				
13:40~14:30	특강 1	임형순 목사		김건수 목사	
14:40~15:15	찬양콘서트	성기찬 목사		포이맨 찬양팀	
15:30~16:20	특강 2	조길수 목사		신재영 목사	
16:20~16:30	휴식				
16:30~17:20	특강 3	조은혜 목사		신재영 목사	
17:20~17:30	휴식				
17:30~18:20	기도회	찬양: 성기찬 목사 기도회 인도			
18:30~	저녁식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스포츠선교회 탁구동우회 11월 모임

교단산하 스포츠선교회 탁구동우회에서는 건강한 생활체육 탁구를 통해 건강증진과 함께 복음전파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고자 회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성원,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은혜서원교회(담임 장성미 목사)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237



참여문의 010-5145-3816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기독교인들 역차별 받는다”

길원평 교수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세미나 개최



길원평 교수
한동대 명예교수



정진균 목사
인천지방회 전임회장

인천지방회 확관순복음교회에서

인천지방회 전임회장 정진균 목사(교단 총무)는 지난 11월 19일(주일) 오후 4시 확관순복음교회(담임 정진균 목사)에서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를 강사로 초청하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를 주제로 2시간 여 동안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이며, 현재 전 세계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양분된다. 195개 국의 유엔 회원국 중에서 2020년 현재 72개 국가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징역 등의 처벌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서울시를 포함한 몇 개의 지자체가 성적지향(동

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고 21대 국회에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4개가 발의되어 있다”고 했다.

길 교수는 이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또는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한쪽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지는 반대할 기독교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가치를 표현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받게 된다.

길 교수는 이런 비정상적인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 지금도 사법하며, 추운 겨울 텐트에서 쪽집을 지키고 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성군이 옷깃을 파고드는 평추위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과천 법무부 청사 앞 차디 찬 아스팔트 위에서 외치고 있다. 다음은 법무부가 추진중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내용에 반대하는 성명서의 주요내용이다.

전국 3천여 명의 교수들이 법무부가 추진중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내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임영아 사무국장(국민을 위한 대안) 사회로 길원평 교수(한동대)를 비롯 광혜원 교수(경이대), 이상현 교수(전 총신대)와 이상현 교수(연세대) 등이 발언했다. 이후 제양규 교수(한동대)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문재인 정권은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내오막시즘의 거짓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발 개정을 추진하였고, 수많은 법률 및 조례 제 개정을 시도하였으며, 정부 각 부처를 통하여 온갖 나쁜 정책을 시행하려 하였다. 대표적인 정책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반헌법적이고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

둘,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정 운영방안과 다르게 문재인 전 정권의 반헌법적 거짓 인권 정책 추진을 즉각 포기하라!



셋, 법무부는 반헌법적 거짓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의 책임자와 실무자를 즉각 분책하라!

넷,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거짓 인권을 주장하며, 자유 민주주의 사회체제를 개편하려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주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즉각 개편하라!

분명한 국민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강행할 때는 강력한 국민적 반발과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인천지방회 전임회장 정진균 목사(교단 총무, 확관순복음교회)는 이단사이비 대처, 차별금지법 반대 등의 세미나를 통해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아울러 정진균 목사와 성도들은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알리고 평가하게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한 금란교회 시역후원위원장 이호 목사(국회조찬기도회 강사,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를 강사로 확관순복음교회에서 ‘거룩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승만’이란 주제로 특

강시간을 연이어 갖고 바른 역사적 평가를 위해 헌신해 오고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에는 전 국정원장 김승규 장로를 초청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와 교회의 할 일’을 주제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점검해 보기도 했다.(목양신문 1229호 5면)

인천지방회는 지난 회기동안 한국교회의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교회에 침투해 오는 이단사이비의 대처를 위해 2021년 6월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장)를 강사로 세미나(목양신문 1175호 3면)를 가졌으며 11월에는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등 기존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온갖 사회 악법들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은 이에 대해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할지 감지연 약사(영남신학대학교 특임교수)를 강사로 세미나(목양신문 1186호 3면)를 갖고 한국교회에 침투해오는 이단사이비와 전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사이버목회대학원 졸업예배



2022년 졸업식광경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사이버신학연구원·사이버목회대학원 학사일정에 따라 2023학년도 졸업식을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 참석대상 : 사이버신학연구원·사이버목회대학원 졸업 대상자

• 참 고 : 1) 졸업 대상자는 졸업식 당일 낮 12시 30분까지 안양성전 1층으로 도착(예행 연습)

2) 졸업가운 수령은 졸업식 당일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도착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사이버신학연구원·사이버목회대학원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고문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동웅 목사



김병완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최규명 목사



강경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박노섭 목사



박규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대표고문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지도위원

부회장

사무국장

상임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운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연용희 목사, 이두영 목사, 임기석 목사, 신상우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홍문표(국회의원), 김태홍(충남도지사), 강훈식(국회의원), 박경귀(아산시장), 김중오(아산경찰서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박성기(U1대 교수), 박하식(전 삼성고 교장)

김병완 목사

김수홍 목사

최규명 목사, 강경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규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진동웅 목사, 노선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경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규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박차영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판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희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한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구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장한원 목사, 정병환 목사, 윤돈상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박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청환 목사, 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홍규 목사, 고영기 목사, 박성화 목사, 장중우 목사, 정진학 목사

이진희 목사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준호 목사, 임해성 목사, 김중권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안상욱 목사, 안준호 목사, 홍은식 목사, 김학식 목사, 오세완 목사

박희종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재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한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박해서 장로

박해서 장로

박해서 장로

박해서 장로

박해서 장로

박해서 장로

박해서 장로

박해서 장로

박해서 장로

■ 생명의 말씀 ■



양 정 섭 목사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 협 대표회장
- 평안교회 담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대하여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성령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근신케 하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뜻을 찾아 쫓아 살아가는 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태도

살전 5:19~22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10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민음의 가정들에게 할찌니라” 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을 위해 하시는 영적 탄식 만으로도 우리들은 만족히 여겨야 합니다.

2.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육신의 소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고 하였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은 매우 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소멸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 성령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거역치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대nea 무사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사이를 지나 드로이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

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령의 지시하심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이 귀에 활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이는 징벌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

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4.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제회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언

절대로 성령을 근신케 말고 기쁘게 해드리며 그분의 뜻에 거역함이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 강하게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는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대학이다. 28년 전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계가 만든, 기독교 정신의 건학이념과 비전으로 만들어진 고등교육기관이다. 지금까지 이 학교로부터 신실한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그런데 최근 동상애를 인정하고 두둔하는 ‘차별금지법’의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을 초청하여 학교 내에서 강의를 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고 의원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에 공동 발의한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지역 교계와 종학생회까지 나서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종학생회는 ‘평등이라는 허울 아래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반기독교적이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고민정 의원을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에 초청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동대학교 이사장이신 이재훈 목사님과 수많은 교계의 목사님들이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통하여 막아온 것을, ‘소통’이라는 강의 주제와 무관하게 초청한 것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비전리의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학부 주관으로 20일 고 의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했으며, 교계와 학생들의 간절한 요청은 묵살한 것이다.

한동대학은 기독교계에서 자랑할만한 학교였고, 지금까지도 건학이념과 비전대로 성경적 창조론 회복, 훼손된 윤리 도덕의 회복,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 교육을 주장해 왔다.

그야말로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학교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데 공동체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 염려스럽다.

물론 대학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진 윤바른 도덕과 윤리를 허물려는 것이 ‘차별금지법’(평등법)임을 모를리 없는 해당 교수와 학생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는 정치인을 데려와 강의를 강행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

어떤 이는 강사를 통해 차별금지법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닌데, 웬 호들갑이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묻는다. 그 초청된 강사가 소통의 달인(達人)인가?

한 가지 희망은, 이번에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사회에 파고 들어와 전통 질서와 가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가를 깨닫기 바란다. 아

마도 한동대학이 철저한 기독교학교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더욱 접근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소통’을 주제로 하면서, 소통의 상징적 인물로 보기에는 미흡한 사람을 강사로 선택한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성이 엿보인다. 한동대학이 추구하는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누군가 이를 해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많은 노력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동대학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대학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훈련과 연단으로 계속 걸려나갈 것이다.

동 정

초저출생 인구문제 특강



장헌일 박사(한국 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신성명나무교회 목사)는 지난 11월 23일(목) 부산 동서대학교 선교복지대학원 상담심리학과(학과장 변영인 교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초저출생 시대 인구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했다.

장신대 이사장에 김운성 목사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담임)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총장 김운용) 제29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장신대는 지난 11월 21일(화) 서울 광진구 본교 대회의실에서 제63회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현 리종빈 이사장(광주변영교회)의 임기는 내년 1월 8일까지다. 김운성 목사는 영전교회 전도사 및 부목사, 땅끝교회 위임목사 등을 역임했다.

한동대,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는 지난 11월 11일(토) 효암제플에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년째를 맞는 이 행사는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대륙별·지역별로 팀을 이뤄 각종 문화공연, 전시, 먹거리 부스 등을 마련하는 한동대만의 독특한 글로벌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청라정신과 자유대한민국’ 세미나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회장 신명섭)가 지난 11월 25일(토) 오후 대구 광진 중앙교회 본당에서 ‘청라정신과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23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지태동 목사(준비위원장)의 인도로 이창호 원장(가창 파터마 요양병원, 대화장)의 대표기도, 황봉환 목사(전 신대대학교 부총장)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제6회 예상총연, 제25회 예상연 정기총회 개최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자’ 주제로 열려

대표회장에 이광용 목사 재선임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지난 11월 17일(금)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예배실에서 제6회 예상총연, 제25회 예상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

회장에 이광용 목사를 재선임 결의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새로운 한 회기를 이어

가기로 했다.

예상총연은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회원교단이 하나되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나라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종교다원주의 온상인 WCC와 이단의 패망을 위해 한국교회 성령충만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날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상임회장 안병삼 목사의 사회로 새롭게

출발하는 사)예상총연을 위해 통성기도함으로 시작하여 법인이사 원동인 목사의 대표기도, 법인이사 서영진 목사의 성경봉독, 예상총연개회 총회 박종선 목사의 설편연주, 예상총연 전국연합 총회 임원일동의 찬양, 고분 정래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행 19:1-7 말씀을 본문으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과거 우리의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고 개혁을 일으켜서 개혁의 신앙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성령과 말씀으로 돌아가 새롭게 되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예상총연이 이를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고분 김원식 목사, 강기형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특별기도로 ‘국가와 동임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을 위해 ‘국가안보와 사회,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교회 말씀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해 ‘WCC와 이단 패망을 위해’ 사)예상총연 부흥과 발전을 위해 김병선 목사, 지광식 목사, 이후현 목사, 오선미 목사, 차요한 목사, 하석수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계속해서 예상



보수합동 총회 임원들의 헌금찬양, 법인이사 김순종 목사의 헌금기도,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인사말씀이 이어졌다.

이광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과 코로나 엔데믹 이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가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예상총연이 앞장서서 바른 말씀과 성령으로 한국교

회를 깨우고 우리들의 변화를 위해 더욱 기도해 힘써 성령으로 충만 하여서 온 땅에 성경대로의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예상 합동계승 총회장 송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인도로 총회에 들어가 각종 회부를 처리하고 임원선출에서는 헌법에 의거 예상총연의 안

정적 발전을 위해 이광용 목사의 대표회장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아울러 이광용 목사는 이단 사이버와 WCC 등 종교다원주의와 한국교회를 혼잡케 하는 불의한 세력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 다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한국교회가 새롭게 서서 이 땅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갈 것을 강조했다.



월드뷰티, 추수감사절 밥사랑 잔치

쫄방촌과 독거어르신 초청, 선물도 전달

지난 11월 17일(금) 엘트림노인대학강당에서 쫄방촌과 독거어르신 초청 '추수감사절 밥사랑 잔치와 선물전달식'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 행사는 햇볼트리나티신학대학원대학교(TTGU)동문회(회장 김병준 목사)가 주최하고 (사)월드뷰티웬츠(회장 최에스터 신한대 K-뷰티학과장 교수)·신생명나무교회(담임 장현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KBSI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장현일牧사는 “경제가 어려워 후원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들게 살아가는 쫄방촌과 독거 어르신분들을 위해 맛있는 식사와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TTGU동문회 자원봉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동문회장 김병준 목사는 “이번 추수감사절 사랑의 밥나눔과 함께 떡과 생필품 등 사랑의 선물과 함께 독거 어르신 분들을 섬길 수 있어 기쁘다며 삶에 용기를 갖고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장현일 목사와 밥나눔자원봉사자 TTGU동문회 총무 손훈오 목사, 하모니카 연주 정성국 목사, 이정 목사, 김문숙 목사, 백세림 목사, 구한나 전도사가 자원봉사로 참여해 큰 기쁨을 나누고 장민혁 사무총장(월드뷰티웬츠), 최세연 전도사, 최세진 영양사와 최원희 조리사, 이상진 노인대학 회장이 자원봉사자로 참석해 거동 불편한 쫄방촌과 독거 어르신을 방문해 사랑으로 섬겼다.



한교봉, 우크라이나 헤르손지역에 2차 구호물품 전달

한국교회봉사단(대표단장 김태영 목사, 이하 한교봉)은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 기간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전쟁 종식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헤르손지역에 2차 구호 물품을 선교사를 통해 현지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 1차 지원과 동일하게 1,100가구 주민과 군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지금도 포탄이 터지고 총성이 오가는 헤르손 지역에서 한국교회جا 전하는 따뜻한 사랑이 11월 22일, 23일 2차 겨울나기 물품과 생존키트가 전달 되었다. 한교봉은 지난 10월 헤르손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한화 650만원 상당의 지원금으로 3차(1차 540박스, 2차 460박스, 3차 194박스)에 걸쳐 생수 13,000명의 식수와 함께 긴급 생존키트 40,00여 명에게 지원하면서 헤르손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변함없이 한국 교회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전

달했다.

한인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 사역자들이 헤르손 주변 지역에서 구입하여 제작한 야전 침낭 300개와 따뜻한 이불 350개와 식료품 구호박스 250세트에 우크라이나 현지어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를 반사 표기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헤르손 수혜 주민들에게 시간에 맞추어 전달했다.

이번 생존키트와 겨울나기 물품들은 수혜주민들뿐 만아니라 그 지역을 수비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한 야전 침낭들이 포함되어 이것을 전달받은 군 대표자들은 “한국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너무 춥고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사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승리할!” 하며 한국교회의 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복음은 예배라

평온한 자연의 숨씨는 예배를 세우네.
평화로운 진리의 단상은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네.

하나님의 사선이시여, 지금 내 안에 계시
마음의 지성소 예배의 성전 삼으셨네.

거룩한 음성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요 4:24).
주를 향한 섬김이 은혜와 진리로 한 송이 꽃을 피우네.

오, 거룩한 성 하늘의 신비 노래하리.
하나님의 보좌, 천상의 기쁨,
오늘의 삶의 예배는 신령한 단비되어
온 몸과 마음 적시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니 주여,
그 이름 아저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여, 그 이름 크시도다.

오 주여, 태고의 숨결 영혼의 고향이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예배로 드러나리.

거룩한 시편이여, 예배의 선율이여.
거룩한 삶이여, 예배의 연장이여.

복음의 씨앗은
이곳 한량없이 넓은 미국 땅에도 심어져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널리 널리 전파되네.

기독실업팀과 선교여행 전도열차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는 여기 미국에서도
가족세트전도 특강을 통해 힘 없이 복음전파하다.
새벽예배시간 외쳐대는 전도훈련.
일행 중 빛이방언이 터지고
성령충만 미국에서도 통하는 가족세트전도.
2주간 미국교회에 초대받고 큰 영광 드러낼 줄 믿는다.

가족세트전도 총괄본부장 이수 교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갈월어린이집 후원금 전달식, 장기기증본부

장기부전 환자 어린이들 위해 고사리손 나눔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탁) 경인지부는 지난 11월 10일(금) 인천시 부평구의 갈월어린이집(원장 심점숙)이 후원금 1,156,000원을 전달했다. 이날 갈월어린이집은 11월 4일(토) 진행된 ‘갈월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바자회’에서 모금된 수익금 전액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달라며 기부했다.

후원금이 모금된 ‘사랑나눔 바자회’에서는 기업이 후원한 물품을 비롯해 어린이집 아동들이 기부한 중고 물품과 아이들이 원내 뒷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까지, 다양한 물품이 판매됐다.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들이 정성스레 마련한 바자회 현장에는 어린이집 학부모들 외에도 갈월감리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며 나눔의 장을 펼쳤다.

갈월감리교회 성도이자 이번 바자회를 기획한 심점숙 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였다.”라며, “이번 바자회가 아이들에게 생명의나눔의 소중함을 선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갈월감리교회(이병철 담임목사) 역시 지난 9월 24일 생명의나눔예배를 드리며 성도 140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는 등 장기부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정들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경인지부 본부장 최은식 목사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성숙한 생명의나눔 문화를 꽃

피웠다.”라며, “갈월어린이집 학부모들과 갈월감리교회 성도들이 모두 한뜻으로 생명의나눔 운동에 동참해 주어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교사와 아동, 학부모 및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마련한 이번 후원금은 제주 리파의 집을 이용하는 신장병 환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남대, 최충규 대덕구청장 초청 멘토 특강 진행

‘넘어질 순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주제로 메시지 전해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 영어영문학과가 지난 11월 22일(목) 오후 3시 한남대 56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동문 선배인 최충규 대덕구청장을 초청해 멘토 특강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영문과 학생과 교수, 졸업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83학년 졸업생인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후배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 청장은 ‘넘어질 순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

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고난을 겪으면서 다져진 마음가짐 등을 전했다.

그는 “우리엄마 아빠는 어떤 꿈을 꿔왔을지, 실패했을 때 어떤 결정을 했을지 내가 겪어온 인생을 통해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라며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연탄장수이자 신문팔이였던 소년이자 청장이 되기까지를 되돌아보며 후배들에게 무너지

지 않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전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영어영문학과 변지현 학과장은 “선배님이신 최 청장님이 바쁜 일정 가운데 모교 후배들을 위해 멘토 특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졸업선배들의 멘토특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1)폐놀 성물질
1 손상된 신세포치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송용석 교수님 임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면역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 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 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새바람을 일으키는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어머니가 전해 준 하나님의 말씀



미국 텍사스의 어느 호텔에서 한 젊은이가 절망으로 죽을 결심을 하고 있었 습니다. 그가 머무는 탁자에는 하얀색의 알약 수십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이 알약(수면제)을 먹고 죽으려던 것입니다. 한참 동안 괴로워하 며 죽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또 비관하며 '죽어야 한단 말인가, 죽 을 수밖에 없단 말인가' 라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 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신다. 그 분은 너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도 오랫동안 피난처이신 하나 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눈물범벅 되어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는 심령으로 뉘우치는 간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후 가슴 깊은 곳에서 마음을 꺼 내 이처럼 통회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도록 기도하고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

두 주먹을 짊 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투자했던 사람들을 찾 아갔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을 뵈 면목이 없어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들고 호 텔에 투숙했다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저의 피 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밤새 회개와 한신의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 에 용기를 내어 나타났습니다. 한번만 용서하시고 상환을 유예해 주시면 반드 시 원금과 이자를 갚겠습니다."

투자자 가운데 가장 큰 피해가 큰 두 명의 투자자가 그에게 다시 사업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사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호텔의 창업자 힐튼(Conrad Nicholson Hilton)입 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 시로다"(시 5:12)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 진리의 교회 권사

신앙의 현주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바로 바로 나의 신앙 현주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온 말.
생각할 틈도 없이 취한 행동.
가식을 취할 새 없는 내 모습.

벌거벗겨진 적나라한 내 모습.
당황스러운 문제나 사람을 만난 것보다
더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네.
내가 나를 용서하기가 힘든 시간,
신앙의 현주소가 이것밖에 안 된 내 모습.
너무 실망스러워 마음은 돌덩이...

커튼 쳐버린 마음에 들리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
"네 신앙의 현주소를 보았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닐 때의 모습이 어떤지...
네 마음 성전 삼아 내가 살고 있는데도

그것 잊고 산다면 신앙의 현주소는 늘 그 자리...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게 되자...

자~~ 약속 말씀 붙잡고 일어나거라"
크고 분명히 보이신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 되어
신앙의 새 주소를 쓰게 하신다.



막 14:66~72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장면을 읽으며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목상하다보니 베드로가 바로 내 모습이다.

사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스바 동맹

북한은 11월 21일 일본 해상보안청에 위성발사 계 획과 함께 위성 발사체 추락 예상 지점으로 남서쪽의 서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을 통보 했다. 모두 1,2차 파와 같은 지점이라고 한다. 왜 무지막 지한 북한이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일본에 알릴까?

그 이유는 일본이 세계 10개 해역 중 한국과 북한에 속한 구역의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조정한다는 얘기도. 그래서 일본에 연락을 하지 않고는 위성 발사 를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북한이 정찰위성을 갖게 되면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등 대남 타격용 미사일의 정 밀성이 높아져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 리 정부가 신경을 쓰고 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미 본토가 사거려인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뿐 아니라 군산 기지, 부산 작전기지 등 대남 타격이 가능한 전술핵 탄두 탑재용 단거리, 중거리탄도 미사일을 다양하게 개발해 보유한 상태다. 그러나 한가 지 북한의 단점은 위성 능력이 전무해 이런 무기를 효 과적으로 쓰는 데 제한이 있었다는 것인데 정찰 위성 을 갖게 되면 이 같은 주먹에 눈까지 갖게 돼 핵 비보유 국인 우리로서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9.19합의를 우리 군만 지키는 것은 방위 태세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는 것이다. 우리 군은 이 합의 때문에 지난 5년간 백령 도, 연평도 등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비공 등 주요 화기를 현장에서 사격 훈련조차 할 수 없었다. 따 라서 우리 해군의 해상 기동 훈련도 제한됐다는 것이 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5년간 서해 완충 수역을 향해 110여 회에 걸쳐 포사격을 하는 등 총 3600여 회에 이 르는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중 구 역은 북한에 없는 한미 첨단 정찰기의 활동만 제약해 도발 징후를 사전 파악하는 데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안보 불감증 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도 안보 차원에서 9.19합의 일부(해상, 공중) 효력 을 정지한 것이다. 미국에도 이미 통보를 해서 동의를 구한 상태라고 한다. 북한도 이에 대한 응수에 나선 걸 보니 체결 5년 만에 파기 수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안보 의식 없이 일방적으로 불

리한 합의를 했다고 말하는 이유다.

지난 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 방장관은 북한이 지난 5년간 3600여 회 군사 합의를 위 반했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실제로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군사 합의를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로 안 써서 잘못했다고 한 사람들이라 역시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맹목적일까? 뼈 속 깊이 박혀 있는 이념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국가 간에 맺은 평 화 협정, 조약이 평화를 보장 할 수 있나? 최정상이 나서서 한 약속이니 신뢰할만한가? 그렇지 않다. 지난 20세기를 보아도 평화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한 크고 작은 평화협정들이 한 둘이 아니다.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오슬로협정은 두 국가 해방으로 양국의 공존 가능성을 제시했고 협정의 주역들은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이-팔 갈등은 계속되었고 협정 체결만 30주년을 갓 넘 긴 지난달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악의 공습을 당한 것 이다. 1973년 베트남평화협정,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 1919년 베르사이조약 등 처참한 전쟁으로 귀결된 평화 협정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난 10월 3일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핵무력 고 도화'를 명시한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안이 최고인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해 9월 핵무력 정 책을 법령화 한 데 이어 헌법에까지 반영한 것이다. 이 씬다면 북한의 각종 도발행위가 군사 합의에 위반되는 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쉽게 표현한다면 평화의 실체에 대한 양측(단, 북한)의 공감대가 전혀 없 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만 불리하게 합의된 내용을 지켜야 한 다? 북한은 수시로 위반하고 뚝개는 데...우리만 도덕 군자이니 지켜야 한다? 군사 충돌이 줄어들었으니 우 리는 9.19 합의를 지켜야 한다? 내가 먼저 점으면 상 대방도 으레 따라와 주겠지 하는 도덕심과 감성으로 는 국가 안보에서는 통하지 않는 법이다. 아픔과 라반 의 동맹처럼 한·미동맹 관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 는 미스바 동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미스바라 하 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창 31:49)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4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4회 실행위원회

일시 2024년 1월 8일(월)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 회의)

장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02)2675-5181~3

참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전임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관게로 참석여부를 12월 20일(수)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무

목사

목사

김 병 목

정 진 군